



[뉴스] LG 글로벌 연합 만들어 시로 화학소재 개발 02



Economy

코스피	2396.69 (0.00)	코스닥	888.44 (0.00)
금리 (우대금리)	0.926 (+0.011)	환율 (원/달러)	1186.90 (+2.00) (11일)

삼강오륜 ‘시윤리’ 초안 마련 ‘사람 중심’ AI 국가전략 탄력

과기정통부, 윤리원칙 수립 3개 가치에 5개씩 원칙 선정 의견수렴 후 연내 발표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개 분야에서 15개의 인공지능(AI) 윤리원칙과 3개의 윤리 가치를 담은 AI 윤리 초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정부 최초로 내놓은 AI 윤리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하위규정 역할을 할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AI 윤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가 잇따라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있어 민간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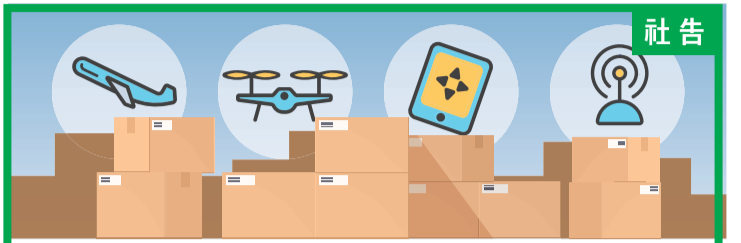


아직은 생소하지만 한 인공지능(AI) 면접이 고용 트렌드로 자리잡자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은 AI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마이다스아이티의 AI 면접 시스템을 통해 AI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마이다스아이티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AI 윤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맡겨 최근 AI 윤리 초안을 마련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 늦어도 12월까지 AI 윤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교수 등 학계 3~4명, KISDI 2명, 관련협회 관계자 등 6~7명으로 AI 윤리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엔 만들어진 초안은 3개 분야에 5개씩 총 15개의 윤리원칙과 함께, 별도로 핵심적인 AI 윤리 가치를 3~4개 선정해 따로 윤리가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다. 내용은 윤리원칙인 만큼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체계적이며,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이후 준비해 따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윤리지침에 한국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 윤리가치를 삼강오륜으로 삼고, 분야당 5개씩인 15개의 원칙은 오륜을 상징해 ‘삼강오륜’의 정신을 표현했다. 과기정통부의 AI 윤리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AI 원칙 권고안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AI 윤리를 참고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엔 마련된 초안은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해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AI 국가전략에서도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한다고 밝혔는데, AI 윤리도 사람 중심의 AI를 목표로 AI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며 “지침으로 만들면 자칫 규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내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이정표를 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도 크지만 우리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산업 역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개개인의 소비와 연결되는 택배를 포함한 산업대동맥인 ‘물류’, 그리고 인간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변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가속화가 대표적입니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변화를 가져올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물류와 모빌리티의 발전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미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욱 앞당겨줬을 뿐입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메트로경제의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이 그 해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 일 시 : 2020년 9월24일(목) 14:00~16:30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잠정)
 - 기조강연 :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전 중소기업청장)
 - 강 연 1 : 이재은 비트센스 대표
 - 강 연 2 : 김중배 KST모빌리티 대표
 - 강 연 3 : 조영탁 비마이아 대표
 - 등 록 :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 접 속 :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 공지
 - 문 의 :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큰폭 감소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에서 관광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3992건으로, 전달(1만647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음식점 영업 제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현대차, 미래 친환경차 이끌 전문인력 확보 박차

아이오닉 전기차브랜드 확정 이공계생 모빌리티 클래스특강 현대자동차가 미래 친환경자동차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브랜드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확정된 현대차는 내년부터 준중형 CUV와 중형세단, SUV 등의 순차적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전동화시대를 대비해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육

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실시한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동화 시대를 대비해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육성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H-모빌리티 클래스’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대차와 현대엔지비,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협업해 개발했으며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이공계 대학(원)생들 중 선발된 500명

에게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대차는 ‘H-모빌리티 클래스’를 통해 ▲신에너지자동차 입문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이해 ▲전기자동차 이해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이해 ▲전동화 전력전자 시스템 기초 /이해 ▲전동화 구동 전동기의 이해 ▲연구자석 구동 전동기의 이해 등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한다. 현대차는 이번 ‘H-모빌리티

클래스’를 이수한 학생에게 현대차, 현대엔지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의의 ‘직무능력 인증서’를 수여하며 우수 교육 수강자 210명에게는 심화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심화교육 수강자 중 우수자로 선발된 대학(원)생에게는 향후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의 관련 직무분야 채용지원 서류전형 면제혜를 줄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정부가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하면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정상 영업을 가능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유지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2.5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학원 등은 정상 영업을 가능케했다. 일반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 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됐다. 다만 이 업소들은 기존과 같이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세경기자 seilee@